

# ‘KREI리포터’ 전남지회 간담회 결과

## 1. 개 요

- 목 적: 농업·농촌 현장여론 수렴 및 리포터 운영 활성화 방안 논의
- 일 시: 2018년 4월 26일(목) 11:00~15:00
- 장 소: 삼이랑농원(전남 해남군)
- 참 석: 총 10명
  - 전남지회 리포터(7명): 남양완, 노웅곤, 오형동, 이인, 주양호, 채수미, 최정순
  - 연구원 관계자(3명): 김용렬 실장, 박혜진 선임주무원, 김미리 주무원
- 주요 일정

시 간	일 정	비 고
11:00~13:00	간담회	해물밭에 노는 닭
13:00~14:00	점심식사	
14:00~15:00	인삼밭 견학	삼이랑농원 (오형동 회원 농가)

## 2. 주요 논의 내용

-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관련 현장여론 수렴
  - 오형동: 일년생은 안 심고 두면 되는데 인삼의 경우, 농약잔류가 없는 토지에 심고자 하면 심을 곳이 없음. 잔류 검출기간의 유예를 길게 두어야 할 것임. 10여 년 전에 뿌린 농약을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함.
  - 김용렬: 뿌리식물, 약용식물은 특히 PLS제도의 파급영향이 클 것이라 예상된다. 작목별 대체방안의 마련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 생각함.
  - 노웅곤: 수요 및 생산량이 적은 품목은 농약 허용 약제가 적어 PLS 규

제에 더욱 어려울 것이라 예상. 농약 하나를 연구하는 데 수반되는 시간 및 투자비용 많아 빠른 시일에 해결될지 의문. 비허용물질을 사용하는 농업인도 문제이나 등록 되지 않은 농약을 파는 농약상에 규제를 강화토록 검토 요망

- 이인: 환경 농산물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GAP 농산물은 인체에 해가 되지 않는 허용치 수준에서 관리되어 왔기 때문에 유통과 안전상에 문제가 없으나, 관행농으로 생산한 일반 농산물의 경우 그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아 PLS제도의 규제를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 농협이나 기술센터에서 농약허용물질에 대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현재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농약을 관리, 처분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이 필요
- 김용렬: 선진국은 잔류농약에 크게 중점을 두지 않는 이유가 표준을 잘 적용하기 때문임. 우리나라는 농약의 오남용 문제가 심각한 실정. 매뉴얼대로 사용하면 문제되지 않을 것인데 과용으로 인해 이런 제도가 생겨 안타까움.
- 채수미: 품질관리원에서 명예감시원으로 10년 째 활동 중임. 친환경 농업에서 농약을 사용하거나 허용수준을 넘는 오남용 사용을 감시하고 품관원에 제보하는 역할임. 아직도 눈속임으로 겉에 보이는 둘레만 농약을 안 치거나 감시원이 없을 때 몰래 농약을 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 농약 허용물질에 대한 관리는 사실 소비자 인식이 먼저 바뀌어야 할 문제임. 예쁘고 깨끗한 농산물만 원하는 소비인식이 변화해야 환경에 좋고 우리 몸에 건강한 농산물을 생산해나갈 수 있을 것임.

#### ○ 전남지역 농업·농촌 현장여론 수렴

- 남양완: 일반 공산품은 모두 가격이 표시되어 있는데 농약은 소비자가 가격이 없음. 농약상 마다 가격이 다르고, 부르는 것이 값이니 신뢰하기 어려움. 농약 소비자 가격표시제 시행을 요구
- 이인: 농산품 포장지원사업을 받으려 하는데 친환경 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에 필요한 GAP인증을 별도로 받아오라고 함. 친

환경 인증은 이미 농산물이 우수관리를 받고 있다는 증빙이 되는데 불필요한 절차를 행정 필요에 의해 진행되는 것 같아 아쉬워 개선을 바랍니다.

- 주양호: 귀농·귀촌인이 농촌에 함께 어울려 살아야 하는데 지원이나 보조, 각종 혜택만 찾아다니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귀농인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음. 마을이장을 통해 주요 정책사업이나 정보를 얻는 농촌의 특성상 이장에게 지나친 권한 행사가 우려됨. 또한 인력부족난에 시달리는 농번기에는 귀농·귀촌인, 공공근로 인력을 한시적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 ○ 전남지역 리포터 활성화 방안 논의

- 김미리: 신입 회원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간담회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봄. 회의를 위해 이런 소모임을 갖는 것도 좋지만 회원 간 농가 견학을 통해 소개도 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는 것도 좋겠음.
- 박혜진: 이전에 전북과 연합해 농가체험을 했었는데, 그와 같이 권역 연합간담회 등을 마련해 회원 간 대면기회를 확대하면 좋겠음. 지회장, 총무께서 지역과 상의해 알려주시면 적극 지원토록 하겠음.
- 김용렬: 회원들도 이 모임에 와서 정보를 얻어 가야 지속적인 참여의사가 있을 것임. 허심탄회한 현장의 소리를 전해주는 역할도 훌륭하게 임해주고 계시지만, 회원 스스로도 역량강화 및 학습 기회를 마련해 보다 영농에 도움이 되고, 리포터 활동이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관심분야의 연구자를 초청해 토론하거나 교육 등 연구원에 요청하시면 언제든 협조토록 하겠음.
- 채수미: 지역간담회에 지원되는 금액 외에 우리 회원끼리 회비를 마련해 모임 활성화를 도모하면 좋겠음. 경조사 또는 견학 등 추가적인 비용발생에 활용하도록 회원들에게 찬반투표를 진행해보겠음.

### 3. 이모저모

